

동해

2000년 이상 불려온 이름인 동해는
이 바다의 가장 오래된 이름입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동해, 해역 이름 문제

대한민국과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해역 이름을 단일화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일본해'가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이 수역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거주 중인 7,700만여 명의 주민들이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유수의 지도 제작자 및 대중 매체에서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입장입니다.



동해 과거, 현재, 미래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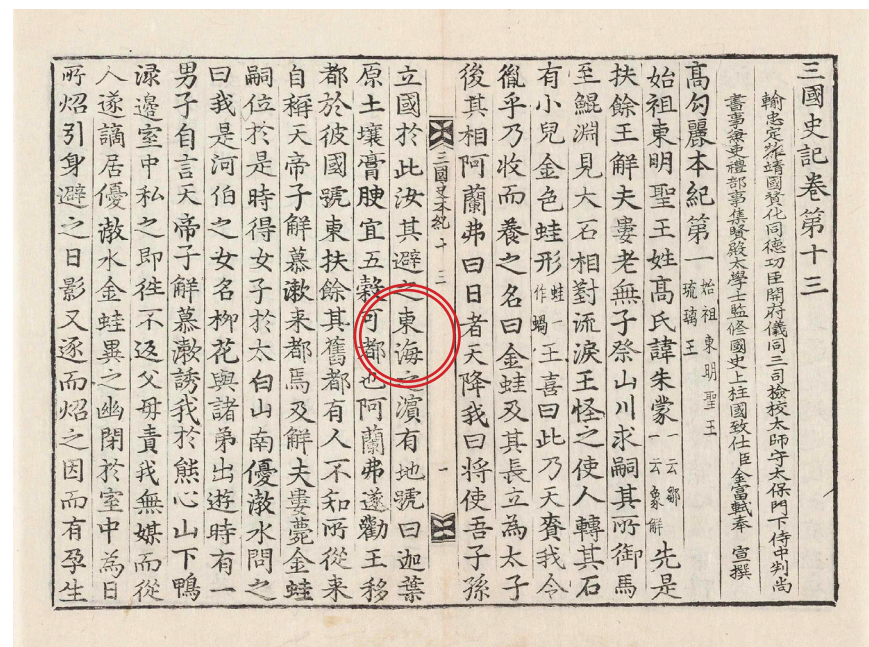
2000년 이상 불려온 이름

수많은 역사 문헌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동해'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2000년 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반도에 거주 중인 7,700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해역은 '동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사기(한국, 11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의 한국 고대사를 다루는 이 정사(正史)에 따르면, '동해'는 기원전 50년경부터 사용된 이름입니다.



19세기까지 이 해역은 '동해', '조선해', '한국해', '동양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870년까지는 다수의 일본 지도에서도 이 수역을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로 표기했습니다.²⁾

광개토대왕릉비문(한국, 414)

국립중앙도서관

이 비문에는 한국의 고대 왕국인 고구려의 19대 왕,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東海'는 '동해'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광개토대왕릉비문(한국, 414)
동해(東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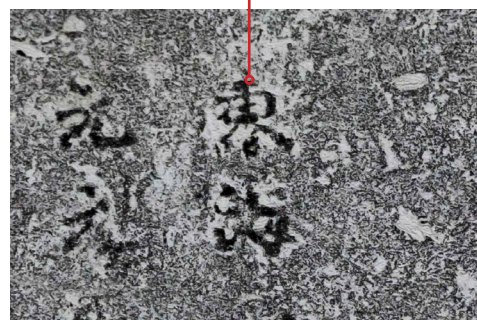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1)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 사이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입니다.
2) 1809년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만든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 1844년 미쓰쿠리 쇼고가 만든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1850년 야스다 라이슈가 만든 「본방서북변경수륙약도(邦本西北邊境水陸略圖)」를 비롯한 다양한 일본 지도에서 이 해역을 '조선해'로 표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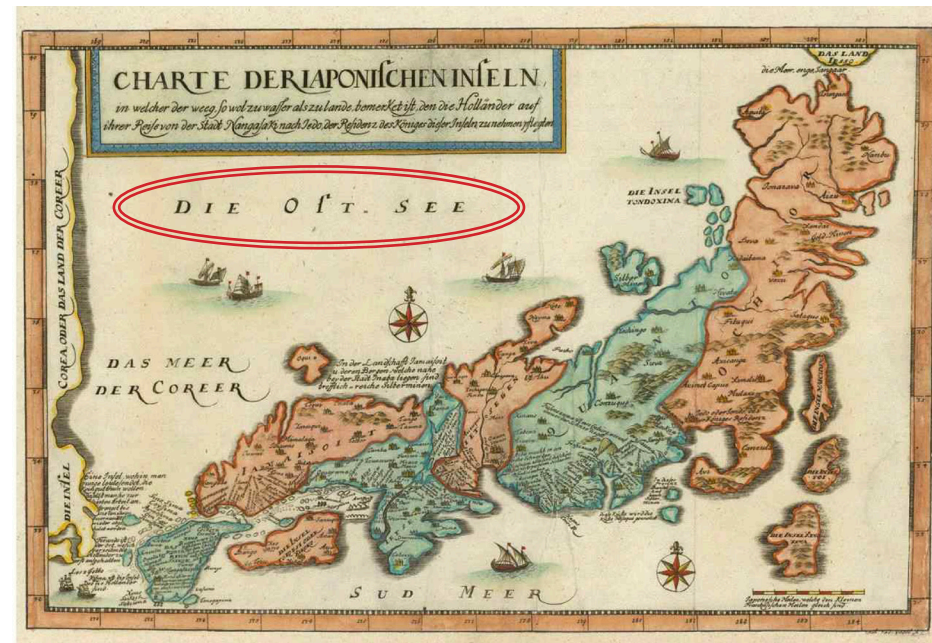
성덕대왕신종(한국, 771)

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은 신종 표면에 통일신라시대 성덕대왕의 업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해를 '東海'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해' 부분 탁본



일본열도지도(독일, 1681)

Jean Baptiste Tavernier 발간

독일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동해를 'DIE OST SEE (THE EAST SEA)'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지도(러시아, 1851)

러시아제국과학아카데미 발간

러시아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동해를 'ВОСТОЧНЫЙ ОКЕАН (East Ocean)'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동해가 한반도 동쪽은 물론 쿠릴열도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는 동해가 '한국의 동쪽 바다'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지도(영국, 1744)

동북아역사재단

1705년 존 해리스(John Harris)는 세계 각지의 여행 정보를 모은 「세계여행전집(A Complete Collection of Voyages and Travels)」을 발간했습니다. 이후 T. 우드워드(T. Woodward)와 다른 지도 제작자들이 이 책의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조지 2세 및 프랑스 루이 15세 시대의 왕실 지도 제작자였던 에마누엘 보웬(Emanuel Bowen)이 만든 「마르코 폴로의 여행지도(A Map of Marco Polo's Voyages, 1744)」가 이 책에 수록되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8세기 영국 왕실 지도 제작자들은 동해를 'EASTERN SEA(동해)'로 주로 표기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옛날과 오늘(독일, 1624)

미의회도서관

1624년 독일의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자인 필립 클리버(Philip Cluver)가 쓴 「세계지리개론(Introductionis in Universam Geographiam)」에 실린 아시아 지도입니다. 동해는 라틴어로 동쪽 바다를 의미하는 'MARE EOUM'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신정만국전도(일본, 1810)

국토지리정보원

일본의 지도 제작자이자 천문학자인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만든 지도로서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1807년에 막부의 명령을 받아 세계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1810년에 막부에 지도를 제출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그는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조선해(朝鮮海, Sea of Joseon(Korea))'로, 일본의 동쪽 바다를 '대일본해(大日本海, Sea of Great Japan)'로 표기했습니다.



세계반구도(러시아, 1737)

독일 괴팅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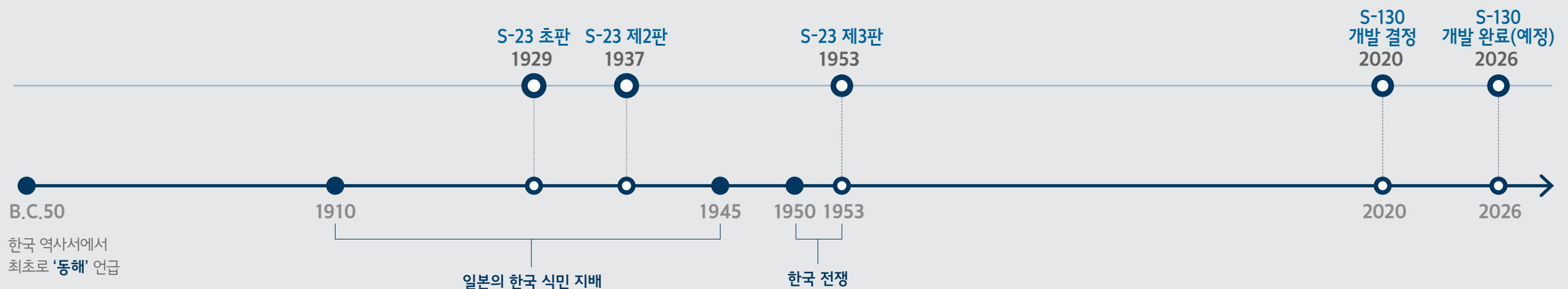
러시아과학아카데미가 1737년에 발간한 지도책에 수록된 세계 반구 지도로서 러시아어로 동쪽 바다를 뜻하는 'Море Восточное'가 동해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과거와 미래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에서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는 해양과 바다의 이름 및 경계에 관한 중요한 국제 참조 자료로 쓰였습니다.

IHO가 S-23의 초판 및 제2판을 발간한 1929년 및 1937년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제3판이 발간된 1953년에는 한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해'라는 이름에 관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1953년에 발간된 S-23 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제1차 IHO 총회에서 S-23의 미래를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제2차 IHO 총회에서는 S-23 해역의 이름을 고유 식별 번호로 대체하고 현대 지리정보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디지털 표준(S-130)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IHO는 S-130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2026년까지 표준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해야 하는 이유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방안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하는 명칭 원칙에 부합합니다.

국제 지도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특정 지형의 명칭은 관련 국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형의 명칭에 관하여 관련 국가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국가가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제 지도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은 관련 결의안인 IHO 기술 결의 1/1972(개정안)와 유엔 지명표준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결의 III/20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제수리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결의 1/1972 개정안:
국제지명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1974)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만, 해협, 수로, 열도 등에 대해 각 국가가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해당 지형의 이름 단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각 국가가 다른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단일 명칭 형식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언어의 명칭 형식을 각종 도표 및 발간물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예: English Channel/ La Manche). 단, 기술적 이유로 소축척 도표에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엔지명표준화총회(UNCSSGN) 채택 결의문 III/20 :

하나의 주권 이상의 지형에 대한 이름(1977)

총회는,
하나 이상의 국가의 주권 아래에 있거나 두개 이상의 국가로 분리된 지리적 실체의 지명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1. 해당 지리적 실체를 공유하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국가들은 가능한 한 하나의 이름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2. 더 나아가 지리적 지형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공통의 이름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국이 사용하는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제지도 제작법의 일반적인 규칙이 됨을 권고한다.



관허대일본사신전도(일본, 1868)

개인 소장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의 미술가이자 지도 제작자인 하시모토 교쿠란사이가 그린 일본 및 인근 지역의 지도로서 한반도 동쪽 바다를 ‘조선해(朝鮮海)’, 일본 서쪽 바다를 ‘일본서해(日本西海)’로 표기했습니다. 이는 19세기 말까지 일본에서도 ‘일본해’라는 명칭이 자리 잡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제국(프랑스, 1750)

동북아역사재단

로베르 드 보공디(Robert de Vaugondy)는 1700년대 프랑스의 왕실 지리학자이자 대표적인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여느 지도 제작자와 달리 한반도 인근의 바다를 ‘한국해(MER DE COREE)’로, 일본 인근의 바다를 ‘일본해(MER DU JAPON)’로 명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름, '동해'

점점 더 많은 세계 유수의 지도 제작자 및 미디어 매체에서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본해' 단독 표기 관행에서 벗어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새로운 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미국 주가 이 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두 이름을 병기하는 지도가 꾸준히 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립해양조사원

최근 국제기구의 논의 상황

—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을 위해 2012년 4월에 개최된 제18회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에 대한 명칭 단일화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 회의에서 이제까지 발간된 S-23처럼 '일본해' 명칭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제2차 IHO 총회에서는 S-23 해역의 이름을 고유 식별 번호로 대체하고 현대 지리정보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디지털 표준(S-130)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곧 '일본해'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름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